

주간 테러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9. 20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獨, 불법 이민자 등 막기위해 국경통제 강화
 - 9.12 언론은 독일이 국경을 맞댄 9개국에 대한 입국자 검문을 강화하기로 했으며, 이는 최근 ISIS 등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이 증가해 통제가 불가피해지자 시행한 것이라 발표했다고 보도
 - ※ 이에 네덜란드 등은 해당 조치를 환영한 반면 폴란드·오스트리아 등은 해당 조치를 반대, EU는 생겐 국경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
 - 생겐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출입국 검사 미적용

미주

- 베네수엘라, 대통령 암살계획 혐의로 외국인 6명 체포
 - 9.15 베네수엘라 정부는 「니콜라스 마두로」 대통령 암살계획 혐의로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6명(미국 3, 스페인 2, 체코 1)을 체포, 同 계획이 美 중앙정보국(CIA)와 관련돼 있으며 압수한 소총 등을 증거품으로 공개
 - * 同 정부는 지난해 미국에 체포된 대통령 측근을 석방하기 위해 미국인 수감자를 활용하는 등 협상 조건으로 이용
- 美 대선후보 「트럼프」, 두 번째 암살 시도 사건 발생
 - 9.16 언론은 美 공화당 대통령 후보 「트럼프」 본인 소유의 골프장에서 암살을 위해 AK-47 유형의 소총을 겨냥하고 있던 범인*을 비밀경호국(SS) 요원들이 조기 발견, 대응사격 했으며 총을 버리고 도주하는 범인을 체포했다고 보도
 - * 암살 시도로 체포된 「라이언 웨슬리 라우스」(58세)는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죽이겠다고 언급
- 美, ISIS 견제를 위해 서아프리카 인근國에 병력 재배치
 - 9.11 언론은 서아프리카 대테러 거점으로 삼았던 니제르에서 철수*한 미군이 ISIS-알카에다 등 기승하는 무장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항공기와 특수부대를 인근 해안 국가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
 - * 쿠데타로 집권한 니제르 군부정부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, 기존 미국과의 군사협정 파기를 요구하여 지난달 철수

중 동

- 레바논, 무선호출기 수백대 동시다발 폭발
 - 9.18 언론은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대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선호출기 수백대가 현지시간 17일 15시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동시에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해 최소 9명이 숨지고 약 3000명이 다쳤다고 보도
 - ※ 무선호출기가 폭발 직전 수초간 신호음이 발생하도록 프로그램을 설치, 다수의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손 얼굴 등에 피해를 입었으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

아 · 태평양

- 韓, 北 오물풍선 피해 지원을 위한 ‘테러방지법 개정案’ 발의
 - 9.11 이달희 의원(國)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테러방지법上 ‘테러’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상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,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개정案*을 대표로 발의
 - * 풍선·초경량비행장치 등을 운송수단으로 삼아 ‘공중에게 정신적·심리적 공포를 유발하는 무기나 장치’를 사용하는 것을 테러로 규정
- 中, 테러 방지와 사이버 보안 분야 협력 강조
 - 9.12 언론은 러시아에서 열린 제14회 BRICs 국가안보 고위대표 회의* 에서 中 외교부장이 BRICs 국가들은 테러 방지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, UN 중심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보도
 - * 同 회의는 브릭스(브라질, 러시아, 인도, 중국, 남아프리카공화국) 국가의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
- 인천공항, 6년간 실탄·총기 등 안보 위해 물품 1,807건 적발
 - 9.15 언론은 최근 6년간 인천국제공항 보안 검색 과정에서 테러 이용 우려로 항공기 內 반입과 소지가 금지된 폭발물·실탄·총기·도검 등 안보 위해 물품 적발 사례가 총 1,807건에 달했다고 보도
 - ※ 실탄류(1,167건)가 가장 많았으며, 전자충격기·전염성 물질·독성 물질 등 기타물품(594건), 도검류(26건), 총기류(20건) 순

역사 속 테러사건 Weekly Terrorism Trends

케냐 나이로비 쇼핑몰 테러 사건

- '13. 9. 21, 케냐 나이로비에 위치한 「웨스트게이트 쇼핑몰」에 총기를 휴대한 테러범들이 난입하여 무차별 총격을 가해 67명(민간인 61, 경찰 6)이 사망하고 약 200명이 부상
 - 사건 당시 주말과 '어린이 요리 경연대회'로 쇼핑몰에는 인파가 많았으며,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쇼핑 중
 - AK-47 소총과 수류탄 등으로 무장한 테러범들은 '무슬림 vs 非무슬림'으로 구분, 쿠란에 나오는 기도문이나 무슬림들만 아는 상식을 묻고 답하지 못한 외국인과 케냐인들을 살해
 - 사망자 중에는 美 케임브리지大를 졸업하고 영국인 남편을 따라 케냐에 거주했던 우리 국민 1명(강문희, 38세)이 희생
 - ※ 한국, 영국, 프랑스, 캐나다, 네덜란드, 중국, 인도 등 외국인 18명 사망
- 케냐 정부는 軍과 경찰을 투입하여 진압작전을 실시(9. 24 진압 종료), 테러범 5명을 사살하고 11명 생포
- 사건 직후, 이슬람 叛軍단체 「알샤바브」는 “케냐가 소말리아에 과병한 것에 대한 보복”이라며 테러 배후를 자처
- ⇒ 최근 해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, 국내 이슬람 커뮤니티 관련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강화
 - * 국내 체류 이슬람권(57개국) 인구수는 301,371명(7.31 기준, 법무부)



<사건 현장>

테러 상식 Weekly Terrorism Trends

< 알샤바브(AS) >

- (목표·결성) 소말리아내 외세 축출 및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'06년 결성
 - *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08.3), 영국·캐나다('10.3)
- (주요인물) 지도자 「아흐메드 우마르」, 副사령관 「마하드 카라테」
- (연계세력) 알카에다(AQ, AQAP, AQIM), 보코하람
- (활동지역) 소말리아 全域 및 케냐내 소말리아 접경지역
- (주요테러) '19.7 모가디슈 시청 회의실 자폭 테러(시장 등 고위간부 8명 사망)
 '18.11 모가디슈 내무부 청사 차량폭탄·총격 테러(사망 58명, 부상 106명)
 '17.10 모가디슈 사파리 호텔 등 차량자폭 테러(사망 276명, 부상 300여명)

